피해자협회 활동 보고

윤태봉1(한국금융피해자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피해자협회 회장 윤태봉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교류회가 벌써 8번째가 되고, 제가 이렇게 참석하여 인사말씀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힘써 주신 각국의 전문가, 당사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017. 3.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그런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랑스럽습니다. 2016년말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대통령에게 모아져 있었고, 저희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역시 거의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2017. 3.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아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이름을 바꾼 것에 크게 지나지 않으나, 개인파산회생절차에 다중채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변화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바뀐 정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등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약 12조원

---

1 尹泰鳳, ユン・テボン

(US$10,450,000,000), 8월에는 27조원(US$23,500,000,000)의 채권을 소각하여 약 180만명의 채무가 소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며, 1인당 2천만원(US$17,700)정도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회부터 현재까지, 저희 한국금융피해자협회 본래의 활동은 미미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큰 변화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금융피해자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꾼 경험을 발판삼아, 계속하여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번 교류회에서 그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